

요약

P2P공제는 2011년부터 중국시장에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도입됐으며, 2019년 말 기준으로 P2P공제를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 수는 수십 개에 달함. P2P공제 가입자 수는 약 1.5억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으며, 가입자의 대부분은 소득과 보험가입률이 낮고 중대질병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젊은 계층임. P2P공제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입자는 P2P공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더 많은 보장을 받기 위해 사적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았음

- P2P공제는 2011년부터 중국시장에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도입되었으며, 2019년 말 기준으로 P2P공제를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 수는 수십 개에 달함¹⁾
 - P2P공제는 가입자의 중대질병 및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하며, 온라인플랫폼은 가입자에게 분담금 및 관리비를 받음
 - 분담금은 가입자들이 그룹을 구성한 후 일부 가입자가 의료비를 청구하면 전체 가입자가 그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며, 관리비는 온라인플랫폼이 운영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을 의미함
 - 중국의 P2P공제는 상호보험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운영자, 자금관리 및 위험관리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어서 중국에서 보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됨²⁾
 - (운영자) 상호보험의 운영자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는 보험회사이지만, P2P공제의 운영자는 온라인플랫폼 회사나 IT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임
 - (자금관리) 금융당국은 상호보험 가입자에서 받은 보험료로 적립된 보험금에 대해 자금관리규정을 마련했지만, P2P공제 가입자에게 받은 자금(가입비 및 분담금)에 대한 자금관리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
 - (위험관리) 보험회사는 상호보험사업의 위험관리를 위해 언더라이팅, 오프라인 손해사정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고 있지만, 온라인플랫폼은 디지털기술에 의한 온라인심사와 같은 제한적인 수단을 통해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음
 - 현재 대표적인 P2P공제는 앤트파이낸셜이 운영하는 상후바오(相互宝), 텐센트가 투자하는 온라인플랫폼 회사는 각각 운영하는 칭송후주(轻松互助) 및 수이디후주(水滴互助)가 있음

1) 蚂蚁集团(2020. 5), “2020网络互助行业白皮书”

2) 2018년 11월 중국 금융당국은 상후바오(相互宝)와 같은 P2P공제가 보험이 아닌 것으로 명시함

〈표 1〉 중국의 주요 P2P공제

(단위: 만 명, 위안, %, 일)

구분	운영자	가입자 수	가입비	관리비	면책기간
상후바오(相互宝)	엔트파이낸셜	10,370	없음	8	90
수이디후주(水滴互助)	수이디후주	1,458	3	8	180
칭송후주(轻松互助)	칭송후주	1,569	10	6	180
비후후주(壁虎互助)	비후후주	229	10	없음	360
E후주(E互助)	E후주	340	30	1/인/월	180
강아이공셔(康爱公社)	강아이공셔	313	없음	없음	365
쿼크렌몽(跨克联盟)	쿼크렌몽	159	10~90	0~2.5/인/월	0~180
종투어팡(众托帮)	종투어팡	998	10	0.01/인/일	30~360
디엔디후주(点滴互助)	디디추싱	138	없음	6	180
360후주(360互助)	360IT회사	255	3	10	90
등후어후주(灯火互助)	바이두	36	없음	8	90
메이투안후주(美团互助)	메이투안디엔핑	-	없음	8	180
징둥후주(京东互助)	징둥	-	없음	10	90
닝후주(宁互助)	수닝	-	없음	8	90

자료: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됨

○ P2P공제 가입자 수는 2019년 말 기준 약 1.5억 명³⁾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으며, 가입자의 대부분은 소득과 보험가입률이 낮고 중대질병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한 젊은 계층임

- (가입자 수) 상위 P2P공제인 상후바오, 칭송후주 및 수이디후주의 가입자 수는 각각 1억 명, 1,569만 명 및 1,458만 명을 기록함
- (소득 현황) P2P공제 가입자의 80%는 연소득이 10만 위안에 못 미치며, 72%는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음
 - 연소득이 10~20만 위안에 달하는 가입자와 연소득이 20만 위안을 초과하는 가입자 비중은 각각 16%, 4%에 불과함
- (보험가입률) 가입자 중 공적 의료보험 가입률은 87%에 달했지만, 사적 의료보험 가입률은 32%에 불과하였음
 - 중국의 공적 의료보험제도는 도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자기본의료보험 및 도시와 농촌 주민(비근로자)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도농주민기본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음
- (의료비 부담능력) 10만 위안 이상의 중대질병 의료비(본인부담금)를 부담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%에도 미치지 못함
- (가입자 연령) 상후바오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30세 미만 가입자의 비율은 약 60%를 차지하고 있음

○ P2P공제 관련 설문조사⁴⁾에 따르면 가입자는 P2P공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더 많은 보장을 받기 위해 사적

3)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P2P공제 가입자 수임

4) ニッセイ基礎研究所(2020. 11), “中国においてP2P保険が急速に普及する理由—中国「ネット互助プラン」が保険事業に与える影響に関する調査”; “中国P2P保険が既存の保険事業へ与える影響—中国「ネット互助プラン」が保険事業に与える影響に関する調査”

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

- 대표적인 P2P공제인 상후바오 가입자의 경우 가입 후 만족하다는 응답 비율은 96%인 것으로 조사됨
 - 가입자의 만족 이유로서는 저렴한 부담금을 대가로 중대질병이나 상해사고에 따른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점, 상품구조가 간단하고 투명한 점을 꼽았음
- P2P공제 가입자 중 96%는 사적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응답했는데, 상후바오 가입자의 경우 가장 가입하고 싶은 건강보험은 중대질병보험 및 고액급여를 지급하는 의료보험인 것으로 조사됨
 - P2P공제의 보장한도는 보통 10~30만 위안에 불과했지만 건강보험 중 중대질병보험의 보장한도는 보통 50~60만 위안에 달함
 - 온라인플랫폼이 스마트폰 앱에서 건강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보험상품 판매를 하고 있어서 P2P공제 가입자는 건강보험을 쉽게 가입할 수 있음
 - 한편,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비율은 높아진 가운데 P2P공제 가입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(93%)은 비P2P공제 가입자(80%)보다 13%p 더 높게 조사됨